일 주 문



월정사 청년마음출가학교

정념 평창 월정사 주지 스님은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제3기 월정사 청년마음출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033)339-6800



원융종 법인 이사장 선출

진호 원융종 총무원장 스님은 7월 5일 원융종 총본산 원융사서 열린 법인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법인 이사장에 선출됐다.

"사경 원력으로 학업도 성취하길"

파라미타 12일 전국어린이청소년 사경공모전 시상



전국 어린이청소년들이 사경 실력을 뽐낸 파라미타 제20회 사경공모전 시상식이 7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다.

심사결과 동대부속 영석고 1학년 박은수 학생이 학교부문 종정상을, 강일중 3학년 황지윤 학생이 사찰부문 종정상을 수여받았으며, 또 광동고 2학년 이규진 학생이 봉축위원장상을 받았다. 이밖에 학교와 사찰부문에서 수상자 87명이 선정됐다.

이날 시상에 나선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이번 사경공모전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불자들의 사경실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수행정진으로 집중력도 기르고 학업도 원만성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미국 3개 대학과 MOU 체결



동국대는 "총장 보광 스님이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뉴욕을 방문해 3개 대학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의 공식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7월 7일 밝혔다.

보광 스님은 한미 대학 간 학술교류 및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하는 일환으로 △뉴욕주립 스토니브룩 대학 △뉴욕시립 존제이컬리지 △뉴욕시립 브룩클린컬리지 △커네티컷 소재 가톨릭종립 세크리드 헛 대학 등을 방문했다. 기존 교류를 진행하던 스토니브룩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대학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신성민 기자**

"성소수자 인권 알리기, 종교의 당연한 역할"

Interview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사노위, 7월 15일 퀴어축제서
'불교부스' 설치… '종단 차원 최초'
부채 나누기·법고 타고 등 실시
'차별 없는 부처님 세상' 알려

7월 1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제18회 퀴어문화축제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불교부스'를 설치하고 '차별 없는 부처님 세상'을 널리 알렸다. 퀴어문화축제에 종단 차원으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웃종교에서는 개별 교회 또는 성당 등을 중심으로 부스를 꾸렸다.

불교부스 설치를 앞장서 추진해 온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진작 했어야할 일"이라고 7월 12일 본지와 전화 인터뷰서 밝혔다. 불교계는 그간 성소수자 초청 법회 봉행 및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등에 앞장서며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만큼, 그들을 위한 축제에 동참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란 뜻이다.

"부처님은 인연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만물을 차별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법을 따르는 불자들이 누구를 차별해서야 되겠습니까.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차별받는 성소수자들을 불자들이 어루만져주길 바랍니다."

덧붙여 양 위원장은 이웃종교가 교리에 따라 성소수자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 개별 단체들이 적극 행동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양 위원장은 "향린교회 등이 매우 용기 있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을 따라 많은 이웃종교들이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함께 나서주길 기대한다"면서 "그것이 바로 종교인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종단 차원서 이뤄진 이번 행사에는 성소수자 재가불자들이 협력하며 의미를 더했다. 양 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노동위 실천위원 스님들과 성소수자 불자들은 이날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부처님' '불교는 성소수자와 함께합니다!'란 문구가 적힌 부채를 참가자들에게 나눠주며, 성적 지향 뿐 아니라 어떤 이유로도 차별치 않았던 부처님 가르침을 전했다. 또한 법고타고 체험, '성소수자가 불교에 바란다' 포스트잇 붙이기 등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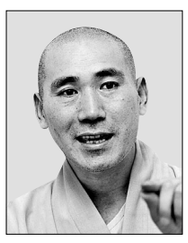
양 위원장은 이런 계기를 통해 성소수자들에게 항상 불교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불교가 진정으로 성소수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부처님 자비정신에 따른 실천으로 그들과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사회노동위는 오는 가을, 서울 시내 사찰서(미정) 성소수자 초청 음악회를 열 계획이다. 최근에는 성소수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몽 스님이 새롭게 실천위원으로 합류하며, 앞으로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사회노동위'로서 역할을 확대해갈 전망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교도소에 참회 수행 보급을"

〈자비도량참법〉 10만권 법보시 시작한 마가 스님



불교에서는 이 번뇌, 악업, 원한을 풀어내는 방법으로 자비도량참법(慈悲道場懺法)을 권한다. 6세기 만들어진 이 자비도량참법을 현대화해 교도소를 비롯한 사회 각 곳에 법보시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바로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사진〉이 〈자비도량참법〉 10만 법보시를 발원한 것이다.

마가 스님은 최근 〈간추린 자비도량참법〉을 펴낸데 이어 법보시를 위해 7월 18일 교정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법보시를 위한 세부일정을 조율했다.

스님은 10만 법보시에 대해 "자장면을 보시하는 운천 스님 등과 교도소 포교를 위해 원을 세우던 중 단순히 법문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평소 수지독송하며 참회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생각해 법보시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생에 태어나 우리 공동체에 회향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대중이 스스로 참회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소 내 많은 재소자들이 자비도량참법을 익혀, 참회로 새로운 삶을 살길 기원합니다. 현대화된 자비도량참법을 이들에게 보급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맑게 하는 또 다른 기회일 것입니다."

한편 스님은 재가자를 위한 개인상담을 비롯해 동국대에서 마인드힐링지도자 과정 등을 운영 중이다. **노덕현 기자**

한국 33관음성지 순례한 일본인

나카무라 미에코, 2014년 시작해 4년 만에 회향



2014~2017년 한국의 33관음성지를 순례한 일본인 나카무라 미에코 씨〈사진〉에게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수암)이 7월 11일 회향증서를 수여했다.

미에코 씨는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한국에 방문한 뒤 한일교류 사이트를 통해 33관음성지를 알게 됐다. 이후 그는 관음성지를 순례하며 한국의 불교 및 전통문화를 접했다.

"4년간 관음성지 순례를 모두 마치고 나니, 새삼 스스로 (긴 여정을)이뤄냈다는 사실이 뿌듯합니다. 회향증서까지 받게 되어 뜻 깊은 한해가 됐습니다. 33관음성지 인장첩을 새로 받아 한 번 더 33관음성지를 순례하고 싶습니다."

미에코 씨는 33관음성지 순례를 위해 총 160여회 한국을 방문했다. 그 후기를 여행정보 사이트 및 개인 블로그(http://ameblo.jp/sunsu9r/entrylist-3.html)에 빠짐없이 기록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미에코 씨의 순례 회향을 계기로 더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의 33관음성지를 찾길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단장 수암 스님은 "이동수단이 편치 않았을 텐데도 외국인 홀로 33관음성지를 모두 순례한다는 것은 보통의 정성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나카무라 씨의 한국여행을 지지하며, 언제든 사찰서 머물며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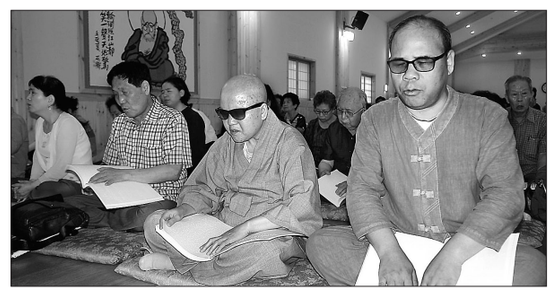
보문종 보문사, 쌀 6400kg 나눔



보문종 보문사(주지 인태)는 생전예수재를 회향하고 공덕을 나누고자 7월 7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 자비의 쌀 6400kg(80가마)을 전달했다. 보문사는 지난 5월 17일 생전예수재를 입재한 바 있다.

보문사 주지 인태 스님은 "생전예수재 공덕을 사회에 나누고자 신도들과 공양미를 복지시설에 전달하게 됐다. 의미 있게 잘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은해사, 점자의식집 출판기념법회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7월 9일 경내 템플스테이회관 육화원에서 법산 스님 금강경 4만독 기념법회 및 점자불교의식집 출판기념 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동국대 명예교수(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 법산 스님과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혜성 스님, 강태봉 한국시각장애인불자회장과 시각장애인불자회원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함께했다.

돈관 스님은 "이런 뜻 깊은 법회를 처음으로 가지게 되어 불사의 보람을 한없이 느낀다"며 "앞으로도 은해사는 장애인 불자들의 복지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영산불교대학, 고성 하계수련회



현지사 영산불교대학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 고성분원 일대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한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현지사는 춘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지사 말사인 고성분원은 고성 초도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약사기도도량이다. 영산불교대학 하계수련생들은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남북평화통일 기원법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총연합회 회원등록 안내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법인설립을 허가 받은 단체로 본회 설립동기에 대하여 종단스님 및 문화예술단체 지도자님들께 널리 알리고 회원을 모시고자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스님 및 지도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설립동기 : 많은 종교지도자님들께서 몸담고 계셨던 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임원과 회원들 간에 소통하면서 투명하게 운영해 주었으면 ●법인설립자 및 회장단이 독선적으로 연합회를 운영하지 않았으면 ●각종행사 등을 하기 전 회원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였으면 ●회비 및 후원금을 회원들의 현실에 맞게 정했으면 ●행사일정을 행사 15~20일전에 미리 연락해 주었으면 ●회원들 상호간에 서로 상생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가 되었으면 ●덕망 있는 좋은 분들 만나 단체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본회를 설립한 소생들도 위와 같은 소망을 오랜 기간 추구해 왔던 당사자로서, 항상 낮은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기필코 해결하여 회원님들이 신뢰하고 덕망 있는 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 : 종단 및 문화예술 단체등록, 종단행정, 사단법인설립, 재단법인설립, 사암등록,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관청 등록번호등록증명서, 단체명의 차량등록증 등 모든 행정에 대하여 지원도 해드리고 친절하게 상담도 해드립니다. (문의 : 사무총장 산수스님 H·P : 010-3300-0408)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총연합회

대구사무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 205(성당동) 2층 전화 053-621-0408 | 강원사무실 : 강원도 동해시 만우안길 5-3(만우동) 정심사 전화 033-534-3956